

A Cultural and Literary Way to Remember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Focused on Koh Jeong-hee's Poems and 'Gukpung81'

Sunok Yeom*

Seoje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Koh's poetic practice by looking inside and outside the 70s and 80s, and especially Koh's unique method against 'Gukpung81', which seeks to erase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s a research method, I will look for the secularization of Hanshin University and the Christian world those days, then look at Koh's method of fighting against the 'Gukpung81' through the work of Aleida Assmann. The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on the people and on women's liberation although she is regarded as a unique poet who remembers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 year after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the state hosted 'Gukpung81' and prevented the concentration of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memorial ceremony. 'Gukpung 81' was a national 'festival' with a hidden political purpose. As a result of the study, Koh laid the foundation for the 'remembering method'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way the state erases collective memories. Since then, the literary and cultural circles have recalled the 5·18 memories for various methods, and have not only become monuments of cultural and literary memories, but also play a pivotal role in collective memory. A comparative discussion on the memory recall method and embossing of memories between the literary and cultural circles will be left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Emergency Measure No. 9,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Gukpung81', the Place of Memory, Suyuri, Hansin Univ.

* **Corresponding to** Sunok Yeom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jeong University)
E-mail : tell2000@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문화적·문학적 방식: 고정희 시와 ‘국풍81’을 중심으로

염선옥

서정대학교 강사

요 약

본 연구는 70~80년대 안팎을 살피 고정희의 시적 실천 방식, 그중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우려는 ‘국풍81’에 대항하는 독특한 방식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고정희의 정치 참여시는 한신대와 기독교계의 세속화와 연관이 있으므로 먼저 살피고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의 흔적을 지우려는 ‘국풍81’에 대항하는 고정희의 방식을 알아이다 아스만의 저작을 통해 고찰했다. 기독교적 세계관, 민중과 여성해방이라는 키워드 외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독보적 시인으로 간주되는 고정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억을 지우는 방식에 대하여 각인의 방식을 살핀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고정희가 한신대에 입학하던 1975년 전후는 국가의 경제 사회적으로도 민주화,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공권력의 이름을 얹어 기독교계 탄압과 민중 탄압 그리고 언론 통제가 자행되던 시기였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는 지 1년 뒤, 국가는 ‘국풍81’을 KBS 한국방송공사 주관으로 진행했다. ‘국풍81’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식 집중을 막고 진실과 ‘기억을 지우는 방식’으로 전통과 언론을 수단 삼았다. 다시 말해 ‘국풍81’은 정치적 목적을 숨긴 국가적 차원의 ‘축제’였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국가가 집단 기억을 지우는 방식에 고정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았고 초석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 이후 문학계 및 문화계가 각기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5·18 기억을 소환해왔고 문화적·문학적 기억의 기념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집단 ‘기억’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했다. 문학계와 문화계의 기억 소환 방식이나 기억의 양각화에 관한 비교 논의는 이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제어 : 긴급조치 9호,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풍81’, 기억의 방식, 수유리, 한신대.

I. 서 론

고정희 시에 나타난 기억공간의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방식에서 독보적이었던 고정희가 70~80년대 문화사에서 5·18을 기억하는 방식은 독특한 지점이 있다. 시적 실천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계 탄압과 기독교의 민주화 운동, 유신 정부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축제를 활용했던 방식, 어용 언론에 대한 목요시 동인의 실천 방식 등이 반동으로 고정희 시세계에 영향을 미쳤기에 고정희의 시를 문화적·사회학적 관점, 특별히 ‘국풍81’과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정희는 누구보다 시대에 앞서 5·18을 시집 형태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문학적 기록물을 검색하면 고정희는 누락되어 있다. 현재 검색하면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임철우, 『봄날』 1-5권, 문학과지성사 1997-1998.
 박해강, 『꽃잎처럼』 1-5권, 자음과 모음, 2010.
 강풀, 『26년』 1-3권, 재미주의, 2012.
 김경욱, 『야구란 무엇인가』, 문학동네, 2013.
 김시중, 『야구시편』, 푸른역사, 2014.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변기현, 『망월』 상·하권, 길찾기, 2015.
 백무현, 『만화 전두환』 1-2권, 시대의 창, 2016.
 정도상, 『꽃잎처럼』, 다산책방, 2020.
 정찬주, 『광주 아리랑』 1-2권, 다연, 2020.
 송금호, 『1980년 5월 18일』, 북치는 마을, 2021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를 위무하고 공권력에 맞서 기록물로 대항했던 고정희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 고정희를 둘러싼 고정관념(여성해방, 민중, 기독교관)에서 벗어나 연구의 외연 확장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보고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고정희에 관한 논자들의 연구는 주지하다시피 기독교적 세계관과 민중적 세계관, 그리고 여성 해방적 세계관 등의 세 층위로 나뉘어 주로 언급되었다. 나희덕은 자신의 글, 『시대의 염의(殮衣)를 마름질하는 손-고정희론』에서, 고정희 시세계의 핵심요소를 ‘기독교·민중·여성’으로 보고 이 세 층위가 서로 침투하며 스미거나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나희덕, 2001: 310-327). 기독교적 세계관, 여성해방, 민중해방, 여성적 글쓰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고정희에 관해 각인된 특정 키워드와 워딩 때문이라는 점에서 고정희 연구의 확장을 가져오지 못한 점이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정희는 한신대(수유리)를 중심으로 초

기사를 형성하고 중후기에 이르러 5·18과 관련한 시대 성찰 및 민주해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급진 운동가로 전환되는 양상을 띤다. 일부 연구자들이 1980년 이후 고정희의 ‘시세계’ 변화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의 영향으로 보고 이로 인해 정치적 부정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의식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도 이런 연유에 기초한다(이소희, 2018: 132).

본 연구에서 5·18을 기억하는 문학계 및 문화계의 사례, 그리고 당시 ‘국풍 81’을 실시한 시대적 분위기를 통해 고정희의 5·18 기억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정희가 5·18을 기억하는 방식은 알라이다 아스만의 ‘추모’의 방식, ‘기념비적’ 방식, ‘천도’의 방식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II. 고정희 시의 세속화·정치화 변모 양상

고정희 초기시는 기독교 성향, 모성에 대한 열망, 시대의 아픔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성을 드러냈다. 이후 실천적 주체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기독교계의 실천적 주체로 나아감,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유리의 바람, 한완상을 비롯한 한신대 교수 안병무·문동환 등 민주화운동 주체들의 실천적 자아로의 촉구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후 고정희는 시적 방향을 구체화한다. 가령 기자로서, 시인으로서, 여성해방운동가로서, 종교인으로서 어용언론을 폭로, 민중 속에 여성을 포함 시키려는 노력, 망자의 넋을 위무하는 시도, 살아있으나 죽은 삶의 민중과 여성해방 및 민주주의의 실천을 촉구하는 등의 주제를 실험시(음악시, 굿, 마당놀이, 서간체, 장시 등)을 통해 표현한다. 또한 ‘국풍81’이라는 미명 아래 기억을 지우는 방식에 대항해 기억을 양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본 장에서는 고정희의 ‘삶의 내용’이 되어준 수유리 공간에 붙어닥친 민주화의 위협과 시대를 살피고, ‘국풍81’에 대하여 자세히 살핀 이후 고정희의 5·18에 대한 문화적·문학적 발화 방식을 살핀다. 고정희는 황지우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사한 시적 행보를 보이는데 이는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 김현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발문에서 황지우를 가리켜 칭한 것처럼(김현, 1983: 123) 고정희 역시 매일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삶의 현실에 맞닿은 보고서가 시라고 볼 수 있을 때, 그의 시적 보고는 르포르타주적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1. 1970년대 수유리 공간

기독교 시인으로 잘 알려진 고정희의 세속화 및 정치적 성향은 기독교의 세속화·정치화와 맞물려 있다. 고정희의 입학 시기인 1975년 전후 1974년부터 1975년 5월 긴급조치와 유신 정부의 억압통치 강화는 학생과 지식인 등 반체제 저항 연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지수,

2021: 224). 1975년 고정희가 입학하던 해 5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되면서 사실상 체제비판의 기회가 봉쇄되었고, 문교부는 1975년 5월 20일 전국 98개 대학 총학장 회의를 소집해 ‘국가안보를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교원의 집단해직을 종용했다. 해직자 명단에는 안병무(한신대 · 신학 · 교수협의회 중앙위원) · 문동환(한신대 · 기독교교육 · 교수협의회 회원 · 해임) · 서남동(연세대 · 교수협의회 전 회장, 의원면직) · 이계준(연세대 · 교수협의회 중앙위원 · 의원면직 · 신학 · 연세대 대학교회 담임) · 이문영(고려대 · 교수협의회 회장 · 행정학 · 의원면직) · 김용준(고려대 · 교수협의회 전회장, 화공학 · 정직) · 한완상(서울대 · 교수협의회 총무, 사회학 · 각서제출) · 양인웅(연세대 · 공학 · 의원면직) · 김규삼(연세대 · 경영학 · 직위해제) · 김윤환(고려대 · 경제학 · 정직) · 이세기(고려대 · 정치학 · 의원면직) 등(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68-1669)이 있다. 이 조치로 1975년 5월 중순부터 6월 초 한신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소속 교원 11인이 해직과 정직 처리되었고, 지식인 등 반체제 저항 연대를 확산시켰다.

한국 기독교의 사회참여 활동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가 조직되면서라고 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는 행보는 국내 유일한 독자 노선이 아니다. “세계교회의 비서구 저개발국에 대한 태도였다. 1970년대 초 세계교회가 비서구 저개발국들에 접근하는 선교의 사회적 의미는 ‘산업화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인간화의 길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 있었다’(안승오, 2006: 257).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가 사회참여 집단 지성으로 성격을 1966년 창단대회 이후 형성하는데, 여기서 ‘세속화’를 주제로 한 창립대회가 열렸고, 여기서 서남동 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 교회의 사회화 방향을 전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고지수, 2021: 212). 고정희의 스승 안병무 역시 1975년 1월부터 1978년 6월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78년 6월부터 1980년 2월까지 부회장을 역임했다(고지수, 2021: 215). 고정희 시에 드러난 급진성이나 세속화 · 사회 참여성은 이처럼 유신 정부의 억압통치라는 사회적 맥락과 이에 따른 교수 · 지식인들의 사회참여, 기독교의 사회참여 활동과 맞물린 결과이다. 학생운동과 달리 기독교의 민주화운동은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교리라는 상징 자원을 활용하는 집단적이고 조직적 역량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저항의 해석틀(배궁찬 외 4인 1999: 264면)’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신광영, 1999: 264). 1973년 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은 전보다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신광영, 1999: 270) 학생운동의 부활을 끌어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언론계와 학계, 종교계 등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개헌 청원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1973년 12월 24일 천관우, 함석헌, 김대중, 지학순, 안병무, 김수환, 유진오, 백낙준, 김홍일, 장준하, 김동길, 김관석, 문동환, 김정준, 김찬국, 계훈제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헌청원 100만인 운동’이 시작되었(신광영, 1999: 271)”고 박정희 정권은 74년 1월 8일 헌법을 부정 · 반대 · 왜곡 등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하고 장준하, 백기완을 구속하고 함석헌 등을 연행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학생운동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검거를 명령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에게는 심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학교에는 폐교라는 처분을 규정하기까지에 이르

렸다.

70년대 고정희는 한신대 내부에서 교수-학생 삭발, 안병무·문동환 해임, 교기 교체 등 저항적 사건을 경험해야 했고, 한신대 밖으로는 기독교계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민주화운동의 참여를 목격했다. 이것이 국가의 민주화운동에 큰 동력이 되고 있었고 고정희의 시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고정희의 정신적 공간 즉 ‘가나안’으로 여겨지는 ‘수유리’ 역시 한신대와 기독교인들의 연대의 장소라는 점을 주목한다면 고정희 초기시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떠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
떠 다니는 혼들은 다 날아와
대학시절 수유리 숲정이 흔들 때
징그러운 바람소리 수유리에 매달려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
고기비늘처럼 빛나는 야심을 흔들 때
조금씩 깊은 잠들 귀막고 돌아 누워
불덩이 하나씩 따뜻한 젊음,
불끈 쥔 두 주먹에 음악도 뿔히고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
유리창 부서지고 램프불 꺼지고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
간밤 굳게 잠은 단꿈도 잃어지고
숲이란 숲은 함께 울부짖으며
세차게 세차게 서로 목 부빌 때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
한 밀천이 흔들리고 두 기둥이 흔들리고
수멸수멸 수멸수멸 네 벽이 흔들리고
수유리가 흔들리고 도봉구가 흔들리고
인수봉이 흔들리고 서울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한반도가 흔들릴 때
흔들리고 흔들리고
땅덩이가 흔들릴 때

갈갈이 찢기는 우리 실존 그러안고

뉘 모를 곳으로 떠나간 사람들
 쨍그렁 쨍그렁 요령이 되어
 새벽 이슬 마시며 떠나간 사람들
 한밤에 가만히 다녀갔구나
 가뭇들린 대학 숲에 흥건한 눈물
 - 「수유리의 바람」 전문

두 번째 시집인 『실락원기행』에 수록된 「수유리의 바람」의 시적 분위기를 파악하더라도 불온한 시대상을 감지할 수 있다. 수유리 숲정에 찾아든 ‘흔들’은 바람에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를 매달고 불덩이를 가슴에 품은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다. 이들은 “음악도 뽀히고” “단꿈도 없어”진 이들이다. 바람은 “숲이란 숲” 모두에 걸리어 “세차게 세차게 서로 목 부”비며 깨우고 있다. 이들의 바람으로 환유된 죽은 이들의 울음은 수유리를 흔들고 도봉구를, 서울을, 한반도를 흔들고 간다. “갈갈이 찢기는 우리 실존 그러안고 뉘 모를 곳으로 떠나간 사람들”은 “가뭇들린 대학 숲에 흥건한 눈물”을 남기고 다녀간다. 고정희의 시대 성찰과 죽은 영혼들에 대한 미안함과 산 자의 몫은 윤택을 통해 이미 초기시에서부터 형성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시인의 고뇌와 성찰은 그의 시적 실천 방향을 결정하고 희미하나마 지향점을 찾는 계기가 된다.

고정희에게 ‘수유리는 정신적·실천적·시적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상징적 핵심 공간이다. 수유리는 한신대가 있던 공간이자 1970년대 민중 신학의 거점이므로, 수유리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고정희의 시적 모티브인 ‘기독교’, ‘민중’, ‘여성’의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박선희·김문주, 2014: 444). 종교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값에 대하여 묻고 따지는 데서 생기는 인간 실존의 한 사건(유성호, 1997: 76)이고 고정희에게 수유리가 배움의 내용이었다는 양 측면을 아울러 그의 시 세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신학대학은 1970년대 안병무 교수가 중심이 되어 현실주의-신학이자 실천 장이었으므로, 고정희가 한신대에서 경험하던 앞선 일련의 저항적 사건들과 안병무와의 인연은 고정희 시세계에 큰 영향과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정희에게 시를 쓴다는 것은 “實存의 획득 외에 아무것도 아니(고정희, 1985: 98)”며, “부름에의 응답”인 것이다.

2. 기억을 지우는 ‘국풍 81’

고정희의 시적 실천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분기점으로 바뀐다는 연구자들의 분석은 옳았다. 고정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지우는 국가 방식과 언론의 협조에 분노한다. ‘국풍’이란 미명 아래 실시된 검열이자 탄압인 셈이다. ‘국풍81’은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주체가 아닌 참가자로 그러모으고 체제비판을 금지하면서 이들의 동태를 파악하겠다는 정치전략에

불과했다.

‘국풍(國風)81’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벌어진 5일간의 대규모 축제를 말한다. “전국 194개 대학 244개 씨클과 88개의 일반팀 등 15,000여 명이 넘는 공연단이 총 659회의 공연을 벌였고 연인원 1,000만 명이 축제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소요된 경비만 총 6억 5,000만 원이었다. 이는 신군부가 민심을 돌리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펼친 관제 축제였다. ‘국풍81’이 열린 시기 1981년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 시점이라는 것, 이는 대학생·지식인층이 대거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집중될 것을 막고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국가가 나선 정치적 차원에서의 축제였기 때문이다. 메가 이벤트가 대부분 정치적(김진형, 2018: 63-81)이라는 점에서 ‘국풍81’이 국가적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추도식과 연대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음은 당연한 귀결이 된다(한양명·안태현, 2004: 475). 이는 일종의 ‘집회’를 막는 ‘수단’으로 ‘집회’와 유사한 ‘축제’를 이용한 차원이다. 축제란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군중의 기대에 반하는 숨은 정치 의도를 숨기기 적합하며 그것이 축제의 시원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국풍81’은 마치 우리 민속과 전통에 민족적 관심과 열기를 북돋아 주고 대학생의 연대를 촉구하는 듯 보이지만,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생들이 참가자로 둔갑했다는 점(김태영, 1981: 기사)에서나 행사 기간에도 54명이 ‘보안 사범’으로 입건된 점²⁾에서 불온한 정치적 이벤트였음을 알 수 있다.

고정희는 정치적 맥락에서 ‘국풍’이 점유되는 방식에 혐오를 드러냈다. 이는 우리 민속과 전통에 관한 것이 마치 대중의 관심을 오락과 스포츠, 섹스로 바꿔놓은 3S 우민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기획된 사실에 분노를 드러낸 셈이다. ‘국풍81’의 시행이 국가고, 주최는 한국신문사협회이며 주관이 한국방송공사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는 방식과 민중의 눈을 가리는 방식 등으로 활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고정희가 이후 우리의 것을 활용하는 시적 실천 방식은 ‘국풍81’에 대한 반발 작용이자 당시 70년대 불어온 우리 것의 활용과 융합의 결실이었다고 바라볼 수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 1) KBS사장 이원홍은 “국풍(國風)은 우리 고유의 풍류와 멋을 뜻합니다. 그 어원(語源)은 『시경(詩經)』에서 나왔다고도 하고 최남선의 시에도 ‘국풍삼수(國風三首)’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말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써온, 민족의 핏줄이 흐르는 용어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풍류와 멋, 풍속, 예술을 총체적으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가 아닌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바로 국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화하면 곧 서양화를 뜻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면서 그것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근대화와 핏줄이 통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1981.5.28, 9면 인터뷰 기사.
- 2) “질서유지를 위해 동원된 경찰병력은 하루평균 2천 3백 명씩 연 1만 1천 5백 명이었으며, 소매치기와 폭력 등 형사사건이 62건, 보안 사범이 54명이었다.” 한양명·안태현은 보안 사범의 대다수가 불온한 ‘국풍81’의 의도를 폭로한 대학생들이었다고 말한다. 「서민문화 잔치 석별의 대행진」, 『조선일보』 1981. 6. 2. 기사.

을 지우려는 국가에 대항하여 ‘기억하는 방식’의 민주화 운동을 이후 진행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실천적 주체로 나아간 시인

고정희가 등단한 시기이자 대학 생활을 하던 1970년대 사회는 앞서 살폈듯 유신정권 및 긴급조치 9호의 발동되었던 암울한 시기였다. 동시에 그 시기 한국 개신교의 세속화 및 사회화를 주도하고 출범한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의 반유신 저항 담론이 형성되면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체의 구원 문제에 눈을 돌린 것은 사회적 분위기이자 기독교계의 시대적 응답인 셈이었다. 한완상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그는 시인을 한 시대와 한 구조의 종막을 목격하며 새 시대를 알리는 자들로 명한다. 그는 기독교적으로 개인의 구원에만 정착하는 것은 시인이 ‘순수’에 머무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에게 시인이 문학의 순수성 또는 순수 문학만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의 ‘수신’과 종교의 ‘개인 구원’과 같은 작용이다(한완상, 1978: 55-56). 이에 한완상은 ‘순수’로 무너지는 양심을 시인이 지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실천적 주체로 나아갈 것을 시인의 사명을 들고 있다. 고정희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주체들의 이러한 영향을 통해, 개인의 구원에서 나아가 민중의 구원과 민중 영역에 여성을 포함하려는 시적 노력을 시도한다. 고정희가 재학 중이던 한신대는 긴급조치 9호 집중 감시 대상이었고 이에 국가의 탄압에 대한 체감온도는 더 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정희를 비롯한 종교계가 ‘선민’이라는 개인의 구원 차원을 넘어 민중의 구원과 고통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실천적 ‘투사’로 나아간다. 고정희는 유신정권 및 긴급조치 9호 아래 학생과 지식인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에 연대하여 맞서 싸우면서 부정의 억압구조 극복과 인류를 위한 봉사를 실천해 나갔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흔적과 기억을 지우는 국가 방식에 반대하며 예술계의 연대를 꾀하고 또 다른 대동제 개념의 축제를 만들어 내어 ‘어둠’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회구한다. 고정희는 이후 시대의 아픔과 민주화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송덕’에 기여하고 민중의 구원에 관한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예술계 연대 및 실험을 시행하게 된다(김정환, 1983: 169). 이는 시인 김남주처럼 나뉘는 방식으로 민중의 나라 건설을 갈망했기 때문이다(염선옥, 2021: 3).

그의 초기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주여, 우리를 고독한 자이게 하소서
우리가 참으로 고독한 길에 맞서서
고독을 끌어안고 번뇌하게 하소서
(오 고난의 주님)

진리의 길은 고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길은 고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 「化育祭別詞」 일부

하느님을 가진 내 희망이
이물질처럼 징그럽다고 네가 말했을 때
나는 쓸쓸히 쓸쓸히 웃었지
(중략)
아프리카나 베이루트나 뱅글라데시
우울한 이 세계 후미진 나라마다
풍족한 고통으로 덮으시는 내
하느님의 언약과 부르심을
우리들 한평생으로 져 수는 없는 것이라서, 다만
이 나라의 어둡고 서러운 뿌리와
저 나라의 깊고 광활한 소망이
한몸의 혈관으로 통하기를 바랐다
- 「서울 사랑-절망에 대하여」 일부, 『이 시대의 아벨』(1983), 16~17면.

오 친구여
오랫동안 어둠으로 무거운 친구여
내가 오늘 내 어둠 속으로
순순히 돌아와 보니
우리들 어둠은 사랑이 되는구나
우리들 어둠은 구원이 되는구나
공평하여라 어둠의 진리
이 어둠 속에서는
흰 것도 검은 것도 없어라
- 「서울 사랑-어둠을 위하여」 일부, 13~15면.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실락원기행』 등 그의 초기시는 시대적 ‘어둠’과 ‘절망’을 기독교적 ‘희망’과 ‘구원’에 기대고 있다. 이는 기독교적인 구원을 통한 세상의 구원을 갈구하는, 시인의 내면적인 고통에 몸부림치고 절규했음을 말해준다. 한완상의 언급을 차치하고도 기독교의 세계관과 구원은 개인주의와 관계한다. 다시 말해 아담의 비롯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인류의 구원은 선민주의에 입각한 선택된 자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개인주의에 관계하게 되었다.

시적 화자는 시인의 목소리 다름 아니며, 시대의 어둠을 구체화하는 주체이다. 민중 속에서

고통을 발견하고 그것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자이다. 초기시를 통해 고정희에게 부여된 ‘민중’ 개념은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를 알 수 있고 그의 민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선언에 기인한다. 이후 고정희는 민중의 개념을 고쳐 말하며 구체적 주체 광주 민중, 여성 등 영역으로 확대 및 구체화해 나간다(조형 외, 1993: 68).

III. 기억의 방식

양투안 콩파농은 모더니티를 언급할 때 전통과 단절된 것이 현대적인 것으로 보아왔던 세기가 있었으나, 벤야민이 주장한 “역사 복제에 대한 역사는, 재평가해야만 하는 원조에 대한 역사라기보다 가장 위대한 현대적인 것, 그래서 극복할 수 없고, 따라서 현대 역사에서 소외된 현대적인 것의 모더니티에 대한 역사(양투안 콩파농, 2008: 13)”라는 주장이 옳다고 말한다. 마치 페드라의 “그토록 검은 불꽃”처럼 보들레르의 “어둠의 등대”처럼 모순된 언어의 수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를 ‘현대적 전통’으로 정의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이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역사 복제가 낡고 진부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현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벤야민의 말과 일맥상통하며 ‘지금시간으로 충만한 시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역사의 기억’을 예술 작품에 반영한 작품 가운데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2007), <택시운전사>(2017) 등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민주주의의 획득에 연대한 국민의 힘이 있었고, 광주의 희생이 있었으며, 국가 권력을 잘 감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숨겨진 많은 낯을 위해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환기되었다. 소설가 정도상 역시 『꽃잎처럼』(2020)을 들고 나왔고, 시인이자 소설가인 한강 역시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2014)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낯을 기억하고 권력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다. 예술계는 이처럼 영화나 미술, 소설 등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상기하고 있었다.

1980년대 대표 여성 시인을 꼽으라면 빠질 수 없는 고정희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가장 충격적인 기억이라 말할 수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목격하고 각인된 기억을 일찍이 시에 담아 민중 운동에 참여했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국내는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참여와 순수의 논쟁이 활발하던 시기였다. <목요시> 동인으로 활동했던 고정희는 한완상의 앞선 촉구와 한신대 및 기독교계의 실천 운동에 응답하며 ‘참여’의 방식으로 김준태, 송수권 등과 더불어 “낯의 현실적 생활로 빛나라”는 주제 아래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1. 감춰진 진실의 통로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억이란 역사적으로 지배자들이나 권력자들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의 기억을 조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알라이다 아스만 2011: 265). 이러한 요인으로 기억이 역사를 담보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나 신빙성이 있는 진리로 여겨지지 못하고 개인적이고 지극히 왜곡 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어왔다. 물론 국가 위정자에 의해서 기억이 왜곡되고 편향되는 방식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다룬 ‘국풍81’이 있으며 그의 시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목요시> 동인들은 “말이 철학이거나 역사이거나 이데올로기일 수는 없으”나 “진실을 왜곡시키는 앵무새로 전락하거나 허수아비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정희 외 5인, 1986: 7)”고 말하면서 시의 실천적 참여를 촉구했으며 이에 역사 속에 감춰진 ‘진실의 통로’로 시적 부호를 사용한다. 시는 그들에게 결국 “거친 시대의 수난을 극복하는 말이어야 하고(허형만 외 5인, 1986: 8)” 역사에 이르게 하는 실천적 통로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목요시> 동인들의 선언을 통해 이들이 추구하는 문학은 감춰진 역사의 소환이고 마주 대함임을 알 수 있다. 시가 역사의 소환이고 거짓이 아닌 ‘진실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시는 『목요시 6』에 수록된 고정희의 연작시 「천둥벌거숭이 노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고정희는 당시 어용 언론의 모습과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거짓과 문화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창과 칼이 되어 주어야 할 언론의 행태를 고발하는 시를 우선 살펴보자.

남면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가변에
흰색과 보라색으로 핀 도라지 꽃밭,
구라파에서 온 예수가
쭈그리고 앉아
조간신문에 똥을 누다
신문은 똥으로 구원받으리
악령이 질주하는 올림픽 도로에는
일용할 죽음이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양담배를 피우며
미래로 세계로 조포를 올린다
- 고정희, 「천둥벌거숭이 노래 · 3」 일부

“남면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3)’”는 경제회복정책 공약으로 박정희가 이룩한 치적 가운데 하

3) 고속도로 건설에 앞서 차관(국가 간의 대출) 타당성을 논의차 미국 월바 S. 스미드(미국고속도로 위원

나이다. 고속도로를 놓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목숨이 사라지고 희생되었던 시대적 아픔은 경제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당연한 희생이 되었다. 고정희는 “고속도로 가변에 흰색과 보라색으로 핀 도라지 꽃밭”에 “구라파에서 온 예수가 쭈그리고 앉아 조간신문에 똥을 누다”며 권력에 무릎 꿇은 침묵하는 언론의 실상을 고발하며 “신문은 똥으로 구원받으리”라는 초강수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악령이 질주하는 올림픽 도로”에 “미래로 세계로 조포를 올린다.” 고정희의 시선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늘 목숨을 잃은 민중과 살아남은 희생자의 가족에게 향해 있다. 화자는 마침내 “미래로 세계로 조포를 올린다. ‘조포’는 군대에서 장례식을 할 때, 조의를 나타내는 뜻으로 쏘는 예포이다. 고정희가 ‘올리는 조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방식이며 그의 시 전반이 이러한 방식으로 민중과 여성을 위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위 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정희가 참여한 <목요시> 동인들은 기억을 역사화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진실의 통로로 기억을 사용하며 왜곡 가능한 기억으로부터 끊임없는 수정 작업과 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언론계의 자유언론수호투쟁이 없었던 바는 아니다. 1971년 4월 대학생들의 노골적 규탄에 자극을 받았던 언론자유수호 운동이나 1973년 11월 10·2 학생시위 이후의 격렬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의 흐름에 힘입어 확산되었던 언론자유선언운동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자발성에도 조직적이지도 힘을 갖지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실패를 통해 기자들은 단합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 1974년 3월 5일 동아방송 내 30여 명에 달하는 방송국 직원들을 무단 전보 발령내는 문제가 발생했고 맞서기 위해 김두식 기자를 중심으로 ‘언론노조’를 탄생시켰다. 방송국 경영자 측은 긴급이사회를 통해 노조가 방송국 이미지 실추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탄압에 나서고 그들을 모두 해임했다. 동아일보의 노조결성은 다른 신문사에도 영향을 미쳤고 언론노조 탄압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544-579).

당시 언론의 탄압은 실로 심각했다. 74년 10월 23일 ‘서울 농대생 데모’ 기사와 관련해서 편집국장 송건호와 방송 뉴스·지방부장 등 3명이 연행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한국

장)이 내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타당한가를 검토했다. (1968년 2월 20일 매일경제 1면) 고속도로 건설은 67년 4월 제6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처음 공식발표되었지만 박대통령은 원대한 국가 경륜의 일환으로 이를 60년대 초반부터 구상해왔다고 말한다. 건설계획 발표에서 착공까지 8개월, 착공에서 완공까지 2년 5개월, 정부고속도로는 세계 건설사에 또 하나의 기록단축신기록을 수립했고 최대의 토목공사였던 고속도로건설사업은 엄청난 장비와 인력, 그리고 막대한 자금과 자재가 투입된 매머드 사업이었다. (1982년 2월 18일 조선일보, “박대통령 시대의 비화 - 못다쓴 이야기 <9> 정부고속도로 ① 전국이 반대한 ‘외로운 결단’”) 이렇게 언론들은 앞다퉈 권력자의 치적을 상찬했고, 정부고속도로 완공에 애쓰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에 관한 기사는 찾기 매우 어려웠다. 정부고속도로 건설에 당시 많은 반대 여론은 온데간데없고 우리 기억에 박정희의 치적으로 남은 정부고속도로라는 것이 왜곡된 기억의 대표이자 권력자들이 공동체의 기억을 작성하는 대표적 예로 삼을 수 있겠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549). 또한 경향신문, 서울신문, 신아신문 등 31개 신문·방송·통신 기자들이 일제히 자유언론의 기치를 들고 일어섰다. 관영방송과 정부 기관지 및 여당계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까지 ‘자유언론’을 외치고 나선 것은 기자들에 대한 언론 탄압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반증해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동아일보의 기자들에서 비롯된 자유언론 운동에 당국은 ‘광고탄압’ 등으로 대응했고 동아일보는 마침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974년 12월 27일 28일 양일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선발대로 시작해 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이 동아일보 구독운동 및 광고해약업체 상품불매운동 등을 전개해 동아일보독가라는 구체적 표현 아래 모습을 드러내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554-561).

1974년 1975년 고정희의 시기는 이렇게 언론의 탄압이 언론사 경영자 측에 따른 내부적일 뿐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외부에서조차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어용언론에 대항하는 시인의 실천적 도구로 시를 사용하는 것은 비단 ‘목요시’ 동인들만 있던 것은 아니다. 고정희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 실천적 주체로 김남주, 황지우 등을 들 수 있다.

2. 민중 추모 방식

발터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관하여』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 사는 ‘비상사태’임을 일러준다면서”(336) 따라서 역사의 구성은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시간으로 충만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역사는 과거에서 종결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지평을 마련한 장소이기(‘은밀한 지침(指針)’, 331), 역사는 구성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구성은 종결이 아닌 ‘지금시간’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함을 일러준다. 따라서 “사건들을 그것들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고” “일찍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것도 역사에서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중시(발터 벤야민, 2008: 332)”하고 있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자신의 저서에서, 추모의 방식은 시인의 ‘기억’에 있다고 말했다. 고정희 외에도 황지우 역시 5·18을 기억하는 대표적인 시인으로 들 수 있다. 그의 ‘기억’ 방식을 살펴보자.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1551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혜’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쭉그리고 앉아
똥을 누다
- 황지우, 「심인(尋人)」 전문

다른 장르가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방식이 전개되고 있지만, 황지우 외에도 고정희 등에게서 더 일찍이 5·18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분야가 5·18의 기억을 이어갔다는 것은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문지, 1983)에 수록된 「심인(尋人)」이라는 제목처럼 사람을 찾는 작은 신문 광고를 인용하여 현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파격적 형식의 시이다. 3연에 걸쳐 사람을 찾는 내용을 제시하고 4연에 이르러 작중 인물이 무력한 자신을 마침내 소개하는 내용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과 달리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풍자의 방식으로 드러낸 시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종수’라는 인물이다. ‘김종수’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로 실종상태인 인물이다. 이는 군부독재에 의해 유혈 사태가 일어났고 희생된 민중의 수가 어마어마했음을 환기한다.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소식이 두절되어 신문에 광고를 낸다는 내용이 무덤덤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마지막 작중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민중의 아픈 사건의 현장에 있지 못했음에 대한 미안함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담아내고 있다. 황지우의 시에서 확인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기억 방식은 참여하지 못한 미안함과 대응하지 못한 시인의 무력감이 화자를 통해 발화되고 있다. 황지우의 시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전면 배치하거나 우선순위에 두는 신문의 형식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5·18에 대한 기억이 된다. 2연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3연에서 “내가 미안하다” 방식은 어쩌면 언론과 국가가 5·18에 대한 태도일 수 있다. 국민에게 바라는 태도, 아무것도 묻지 않기를, 그저 미안하다는 식으로 치부되고 말 일인 셈이다. 화자의 태도는 시인이 꼬집어 말하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국민의 대표인 셈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도 무기력한 화자의 태도를 동시에 환기하며 미안함을 고백하는 태도가 황지우의 기억방식이라면 고정희는 급진성을 띤다. ‘국풍81’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우려는 방식에 조롱이라도 하듯 고정희는 우리 것을 가져와 5·18 희생자와 가족, 민중을 위무하는 방식을 취한다.

걸린 고 맺힌 고도 풀으시고
부정 고 부패 고도 풀으시고
억압살 착취살도 털으시고
감옥살 재앙살도 털으시고
권력부정 차별 부정도 막으시고
남자 빗장 여자 빗장 설설이 벗기사
평등세계 평화세계 해방세계 요지일월세계
수지곤건으로 평안히 가옵소사
슬프다 생각 원통히 생각 말으시고
아무쪼록 받들구 안뜰구 치뜰어서
근심 걱정 우환 지체 없이
흥허물없이 시름없이
시왕길을 밝혀 가옵소사
- 「남녀 해방세계 수지곤건으로 평안히 가옵소사」 일부

고정희의 윗 시는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에 수록되어 있는 시로, 본격적인 ‘마당굿’ 특히 해남굿의 형식을 취하여 낯을 위로하고 있다. 『초혼제』의 「환인제」와 「사람 돌아오는 난장판」과 달리 『저 무덤 위의 푸른잔디』는 굿판에 좋은 사설조를 택해 일반 민중이라는 비구체적 대상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낯을 위무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동일한 사건과 소재의 시적 활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지우에게서 민중 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자,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 담겨져 있다면 고정희에게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낯을 기리는 방식으로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3. 기념비적 도구의 방식

5·18을 놓고 예술가들이 ‘기억’을 활용하는 방식은 이처럼 조금씩 달랐는데, 또 다른 사례로 기억의 소환 방식을 살펴보자. 한국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홍성담은 “판화를 미학이라든가, 예술적으로 완성해야겠다는 욕심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했죠. 제 오월 판화는 예술 이전에 미디어로써 (세계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한 도구라고 생각해요.”라는 말을 남겼다(투데이신문). 홍성담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광주민중항쟁을 주제로 한 판화 연작 시리즈 <새벽>을 비롯해 <세월오월> 등 시사성 있는 미술작품을 통해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을 펼치고 있었다. 홍성담은 “역사는 우리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난 고통스러운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인간의 악마성이 살아난다. 악마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살을 인민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온갖 언설과 폭력을

쏟아낸다. 심지어 역사마저도 조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투쟁을 수반한다. 기억투쟁의 수고 없이 우리는 저 잔인한 학살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홍성담, 2018: 15) 이라면서 기념비적 도구로서 자신이 예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고정희 역시 시집 한 권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시집을 엮었는데, 이는 하나의 ‘시적 기념비’를 세우는 투쟁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정희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참담한 심정으로 절규(채연숙, 2011: 151)하면서 세운 시적 기념비가 바로 『광주의 눈물비』, 『초혼제』,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가 될 수 있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자신의 저서에서 ‘문화적인 기억’(이종훈, 2021: 71-79)이란 망자에 관한 추모를 본질로 삼는다고 말했듯이 고정희도 민중을 추모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오월이라는 의미를
그대 저녁밥상에서 밀어내지 말라
광주는 그대의 밥이다

오월이라는 눈물을
그대 마른 가슴에서 닦아내지 말라
광주는 그대의 칼이다

오월이라는 함성을
그대 출세진급표에서 삭제하지 말라
광주는 그대의 역사성이다

오월이라는 상처를
그대 장래 희망사항에서 내려놓지 말라
광주는 그대 부활의 땅이다

오월이라는 주먹밥을
그대 축복 가운데서 외면하지 말라
광주는 그대 진실의 징표이다

오월이라는 기다림을 그대 겨울 난롯불에 화장하지 말라
광주는 그대의 봄, 우리의 봄,
서울의 봄이다

- 고정희, 「망월동 원혼들이 쓰는 절명시」 전문

고정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를 한두 편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시집 전체로 묶여 낸 광주민주화운동의 기억에 관한 대표 시인이자 민중 운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게 오월은 “그대의 봄, 우리의 봄, 서울의 봄”이기에 5·18에 대한 기억은 잊혀서는 안 될 시대의 흔적인 것이다. 그는 『이 시대의 아벨』(1983), 『초혼제』(1983)와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1989), 『광주의 눈물비』(1990)에 5·18의 참혹함, 권력자들의 폭압,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강렬하게 표현했고 뼈아픈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분노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고정희는 차미례의 발문(차미례, 1990: 192-193)처럼 그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시적 대상의 고통과 구원의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그를 지탱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새벽에 일어나 신변을 위한 노동과 시 쓰는 일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당백의 작업량을 해내고, 여성신학자 모임, 페미니즘 행사, 민중시인들의 모임에 나가 토론을 벌이고, 사이의 시간에도 배우고 연구하고 새로운 기획을 내놓고, 시사잡지에 방대한 분량의 광주민중항쟁 르포 기사를 기고하고(차미례, 1990: 191-192)”한 점에서 그에게 광주민중항쟁은 종교적 거룩함이나 단순히 시적 대상으로 위로할 대상과 과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4. 망자 천도 방식

고정희는 이렇듯 과거의 기억과 사건의 민중적 주체를 소환하는 방식에서 독보적이다. 특별히 『초혼제』와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에서는 희생자들을 ‘마당굿’의 형식을 차용해 위로하고 있다. 마당굿은 세습무나 강신무가 죽은 망자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가족과 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이다. 즉 죽은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는 방식인데 이는 벤야민식으로 역사가 종결되지 않고 고통의 형태로 살아 꿈틀댈을 의미한다. 죽은 자들은 산 자의 가슴에서 영원히 살고 있으며, 산 자들은 상처의 흔적으로 죽은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고정희에게서 역사적 사건은 종결된 역사가 아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로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고정희의 시적 실천을 통해 고정희의 삶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적 세계관과 여성해방에 대한 조짐을 보이고 중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여성해방운동가이자 민중운동가로서 시적 실천을 실현한다. 기독교 시와 달리 대표적 실험으로 굿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구원에서 민중의 해방과 역울하게 죽은 넋의 구원으로 관심사가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고정희는 무대에 극을 재현할 목적을 담은 공연 형태의 대본으로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를 묶었다. 이 시집은 죽은 혼을 불러내어 한을 씻어내고 그 넋을 위로한다는 ‘씻김굿’⁴⁾의

4) 신경림과 김지하의 무속시도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정권 앞에서 죽어간 영혼들을 위한 ‘씻김굿’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죽어있는 삶’과 ‘살아있는 죽음’의 한을 모두 풀어주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

시인의 말기 시집인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1989), 『광주의 눈물비』(1990), 『여성해방 출사표』(1990)를 참조할 때 시인은 희생자들의 아픔과 빙의된 형상을 한다. 고정희의 시는 “개인의 경험이 아닌 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보여주고(서지영, 1998: 35)” 있다는 점에서 서 곳을 진행하는 세습무(무당)의 빙의와도 같다. 시인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죽은 민중의 넋을 위로하며, 이들을 천도한다.

딸 제사 차려놓고 어머니 읊네다
 소주 한 병
 새우깡 한 봉지
 쿼피스 한 잔 사과 한 알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 꽂아놓고
 냅나가고 혼나간 어머니 읊네다
 아제, 한잔합시다…… 음복하는 어머니
 날 잡아잡쉬, 주저앉아 읊네다
 - 「8.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돌아」 일부

위 시에서 어머니는 딸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음복한 후 “날 잡아잡쉬, 주저앉아” 읊고 있다. 이는 “살아있는 죽음”과 “죽어있는 삶”이 섞이는 장이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한 그들의 죽음은 살아있는 죽음이며, 기억하는 이들의 삶은 비록 살아있으되 죽어있는 삶이 된다. 진혼굿은 산 자도 죽은 자도 모두 위로하는 희생자들의 마당인 셈이다. 이어 세습무는 “거두소서 거두소서 칼날을 거두소서……이 넋을 받아 칼날을 꺾으소서”(66) 기원한다. “누가 그날을 잊었다” 말하고 “누가 그날을 모른다” 할 수 있을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민주꽃은 만발하리”니 무서운 칼날을 거두고 부디 “통일의 바람”(72)을 맞이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의 넷째거리는 진혼마당이다. 진혼마당은 “넋이여, 망월동에 잠든

제의성’을 보인다. 셋김굿의 공통 배경은 권력층의 폭력 앞에 힘없는 민중의 상실된 인간 존엄성과 파괴된 가치가 ‘영매자’를 통해 제시된다는 점이다. ‘영매자’는 죽은 민중으로 현시되어 억울한 심상을 위무하고 천도를 기원하는 제의적 성격을 가진다. 권성훈(2015), “한국 현대 무속시와 폭력적 이미지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8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7-32면.

- 5) 고정희는 희망과 죽음인식에 대해 『초혼제』 후기에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나는 ‘죽어있는 삶’과 ‘살아있는 죽음’에 대해 많은 콤플렉스를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성이라는 타자의식과 역사적 굴레에 묶인 이중굴레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죽어있는 삶’이며, 죽은 여자들, 어머니들은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시인에게 내내 화두였던 셈이다. 고정희(1983), 『초혼제』, 창작과비평사, 175면 참조.

넋이여”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곳을 펼친다. “어둠속으로 어둠속으로 전해지는 사연” 속에서 죽은 넋은 “진실을 알려달라 외치는”(40) 사연으로 세습무에게 전해진다. 이들은 “길을 가는 대낮에도 칼로 꽃히”는 이들이었고 “대검에 찢”리고 “진압봉 밑에서 소리치는 이름 석자”(41)였다. 살려달라는 “어린것들의 울부짖음”(43)을 “세월이 그 아픔 물어주지” 못하기에, 그리고 “산해진미 차려놓고 석달 열흘 가무를 즐기는 세월이” 와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은 울부짖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넋”이기 때문이다. 이에 세습무는 “광주오월항쟁 연유에 묻은 피 닦아주사이다 광주오월항쟁 원혼 불러 넋 씻어주사이다”(48-49) 기도하며 “광범아……성만아”(51)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억울하고 불쌍한 어린 혼백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을 천도하는 것이다. 세습무는 넋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 자들이 망자를 어떻게 그리워하고 기억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결책을 모색한다.

I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고정희가 시대에 앞서 5·18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문학계 기록물을 검색하면 고정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유감이고 안타깝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를 위무하고 공권력에 맞서 기록물로 대항했던 고정희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 고정희를 둘러싼 고정관념(여성해방, 민중, 기독교관)에서 벗어나 연구의 외연 확장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본다. 고정희의 세속화는 한신대와 관련이 있다. 이에 한신대 재학 시절에 붙여다친 유신정권의 탄압과 종교계의 각성을 살펴보았다. 또 언론계에 몸담았던 고정희는 어용언론 및 정경유착에 목격한 후, 『목요시』 동인들과 앞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르포르타주적 보고 형태로 수행적 발화를 시도했다. 고정희 시의 구분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보는 연구자들의 입장처럼, 고정희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큰 인생의 사건이었으며 시적 변화의 핵심이었다. 고정희는 ‘국풍81’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우려는 국가적 방식을 목격했으며 전통적인 것을 융합하는 변화를 읽어내고 있었다. 고정희는 이후 국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우는 방식에 대항하여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 것(굿과 마당놀이 등)을 차용해 시적 실험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고정희는 기독교적 세계관, 민중과 여성해방이라는 키워드 외에도 다양한 시적 실험을 한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오늘날 이어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 방식은 고정희에게서 발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문학계 및 문화계가 각기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5·18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References

- Aleida Assmann. *Cultural Memory And Western Civilization*. 채현숙, 변학수 옮김 (2011).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
- An, S. O. (2006). The Origin and Direction of Humanization. *YOUNG 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 25, 257-283.
- Antoine Compagnon. Five paradoxes of Modernity. 이재룡 옮김 (2008). 모더니티의 다섯 개 역설. 서울: 현대문학.
- Chae, Y. S. (2011). The women's Poems as Cultural And Literary Memorie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3), 145-176.
- Goh, J. S. (2021). Research of the Korean Christian Professors' Council- Focusing on the Department of Ecumenical Development Theology and the Korean People's Theory in 1970s.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42, 212-224..
- Han, Y. M. & An, T. H. (2004). Two Landscapes of Festival Politics: 'Gukpung81' and The University Daedongje Festival, *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 26, 469-498.
- Kim, J. H. (2018). 'Gukpung81' and Similarity and Opposition in the Realization Elements of Park Geun Hye Candlelight Rally for Resignation. *Academic Association of Global Cultural Contents*. 35, 63-81.
- Kim, T. Y. (1981). Festivals are not consumable. *The Paper of Hanyang University*, 5(20).
- Kwan, S. H. (2015). A Study on Modern Korean Shamanism Poetry and Violent Image. *The Society Of Korean Modern Literary Criticism*, 48, 7-32.
- Lee, J. H. (2021).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Memory And the Interaction of Those Characteristics. *Korea Humanities Content Society*, 61, 71-93.
- Nah, H. D. (2001). The Hand Making the Gown for the Dead -The Theory of Gho Jeong-hee's Poetry. *Creation and Criticism*, 29(2), 310-327.
- Park, S. H. & Kim, M. J. (2014). The Study of Suyuri in Goh Jeong-hee's Poetry -Focusing on the Hwayukjebyeolsa. *Hanminjok Emunhakhoe*, 66, 443-468.
- Seo, J. Y. (1998). *A Study on the Prose Literature of Modern Korean Poet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 Walter Bendix Schönflies Benjamin. *Theses on the Philosophy of History*. 최성만 옮김 (2008).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서울: 도서출판.
- Yeom, S. O. (2021). A study on Changes in Consciousness of Nam-ju Kim as a Reader of Heine. *Asia Culture Academy of Incorporated Association*, 4(47), 1721-1736.

- Yoo, S. H. (1997). Religious Consciousness And Realism That Appeared in Koh Jeong-hee's Poem. *The Society Of Korean Modern Literary Criticism, 1*, 75-94.
- 고정희 (1981). 실락원 기행. 서울: 인문당, 1981.
- (Translated in English) Goh, J. H. (1981). *Lost Paradise Journey*, Seoul: Inmoondang.
- 고정희 (1983). 이 시대의 아벨. 서울: 문학과지성사.
- (Translated in English) Goh, J. H. (1983). *Abel in this period*. Seoul: Munhak & Jiseongsa.
- 고정희 (1983). 초혼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 (Translated in English) Goh, J. H. (1983). *Chohonje*. Seoul: Changjakkwabipyongsa.
- 고정희 (1985). “후기”.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서울: 평민사.
- (Translated in English) Goh, J. H. (1985). Epilogue. *Who is Stepping on the Drinking Mold Alone*. Seoul: Pyoengminsas.
- 고정희 (1986). 눈물꽃. 서울: 실천문학사. (Translated in English) Goh, J. H. (1986). *The Tear Flower*. Seoul: Silcheonmunhaksa.
- 고정희 (1989).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서울: 창작과비평사.
- (Translated in English) Goh, J. H. (1989). *The Green Grass on That Grave*. Seoul: Changjakkwabipyongsa.
- 고정희 (1990). 광주의 눈물비. 서울: 동아.
- (Translated in English) Goh, J. H. (1990). *Tear Rain of Gwangju*, Seoul: Donga.
- 고정희 (1990). 여성해방출사표. 서울: 동광출판사.
- (Translated in English) Goh, J. H. (1990). *Going Out for the Women's Liberation*. Seoul: Donggwangchoolpansa.
- 고정희, 강인한, 김준태, 송수건, 장효문, 허형만 (1986). 목요시 6. 서울: 청하.
- (Translated in English) Goh, J. H., Gang, I. H., Kim, J. T., Song, S. G. & Huh, H. M. (1986). *The Thursday Poetry 6*. Seoul: Chungaha.
- 김 현 (1983). “타오르는 불의 푸르름”,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서울: 문학과지성사.
- (Translated in English) Kim, H. (1983). The Blueness of the Burning Fire. Hwang, J. W. et al. *The Birds Are Also Leaving the World*. Seoul: Munhak & Jiseongsa.
- 김정환 (1983). “고통과 일상성의 변증법”. 고정희 외. 초혼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 (Translated in English) Kim, J. H. (1983). The dialect of pain and daily life. Goh, J. H. et al. *Chohonje*. Seoul: Changjakkwabipyongsa.
- 김주연 (1983). “고정희의 의지와 사랑”, 고정희. 이 시대의 아벨. 서울: 문학과지성사.
- (Translated in English) Kim, J. Y. (1983). Goh Jeong-hee's Will and Love. *Abel in This Peoriod*. Seoul: Munhak & Jiseongsa.

- 배궁찬, 최용호, 전광희, 정영국, 신광영 (1999).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Translated in English) Bae, G. C., Choi, Y. H., Jeon, G. H., Jeong, Y. G., Sin, G. Y. (1999).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he First Half of the 1970s*. Seoul: Baksanseodang.
- 신광영 (1999). “1970년대 전반기 한국의 민주화 운동”, 배궁찬, 최용호, 전광희, 정영국, 신광영,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Translated in English) Sin, G. Y. (1999).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First Half of the 1970s. Bae, G. C. et al.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he First Half of the 1970s*. Seoul: Baksanseodang.
- 이소희 (2018).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 고정희의 삶과 문학. 서울: 국학자료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S. H. (2018). *The Life And Literature of Goh Jeong-hee, The Pioneer of Feminist Literature*. Seoul: Gukhakjarowon.
- 조 형, 고석주, 박혜란, 장필화, 조옥라, 조혜정, 김혜순, 김은실, 김성례, 박완서 (1993).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서울: 또 하나의 문화.
(Translated in English) Jo, H., Goh, S. J., Park, H. R., Jang, P. H., Jo, O. R., Jo, H. J., Kim, H. S., Kim, E. S., Kim, S. R., Park, W. S. (1993). *My Dry Lips From Your Silence*. Seoul: Tohanaemunhwa.
- 조선일보 (1981.05.28.). 진정한 우리 것 한마당에 볼 기회 됩니다 「國風(국풍)81」 준비의 主役 (주역)……李元洪(이원홍) KBS社長(사장). Retrieved 1981.05.28.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1052800239109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1-05-28&officeId=00023&pageNo=9&printNo=18503&publishType=00010>
(Translated in English) Chosunilbo. (1981.05.28.). You'll have a chance to see our tradition. Lee Won-hong, president of KBS, the main role in preparing for 'Gukpung 81'. Retrieved May 28th, 1981,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1052800239109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1-05-28&officeId=00023&pageNo=9&printNo=18503&publishType=00010>
- 조선일보 (1981.06.02.). 서민문화 잔치 석별의 대행진. Retrieved 1981.06.02.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
(Translated in English) Chosunilbo. (1981.06.02.). Parade of Farewell, a Cultural Feast for the Common People. Retrieved June 2nd 1981,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
- 차미례 (1990). “‘눈물꽃’의 뜨락에서 歷史의 바다로”, 고정희 외. 광주의 눈물비. 서울: 동아.
(Translated in English) Cha, M. R. (1990). From the Beginning of “Tears Flower” To the

Sea of History. Goh, J. H. et al. *Tear Rain of Gwangju*. Seoul: Donga.

투데이신문 (2020.05.18.) ‘5월 화가’ 홍성담 5.18 진상규명 위한 오월 판화, 속옷에 숨겨 나르기도. 2020.05.18. www.ntoday.co.kr

(Translated in English) Todaynew. (2020.05.18.) ‘May Painter’ Hong Seong-dam 5.18 May Engraving and Carrying Them in Underwear to Find Out the Truth. Retrieved May 18th, 2020, from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1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70年代 民主化運動 - 기독교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 1, 2.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Korean Christian Church Council. (1987). *Focusing on the 1970s Civilian-Christian Human Rights Movement*. Seoul: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Korean Christian Church Council.

한완상 (1978). 民衆과 知識人. 서울: 정우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W. S. (1978). *People and the Intellectuals*. Seoul: Jeongwoosa.

홍성담 (2018). 5·18광주민중항쟁 연작판화 오월. 경기: 단비.

(Translated in English) Hong, S. D. (2018).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 A series of Prints, May*. Kyeonggi: Danbi.